

민주당 “거짓말 심판” vs 국민의힘 “정권 심판”

여야, 선거운동 마지막 날 총력전
민주당, 새벽 버스·심야 거리 인사
국민의힘, 청년층에 투표 호소
오늘밤 8시부터 재보선 개표

여야는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KIA타이거즈와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

열리는 고척야구장 일대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총력 지원 유세를 했다.

이날 박영선 후보는 새벽부터 이른바 ‘노회찬 버스’로 불리는 6411번 버스 첫차에 올라 유권자들을 만났다. 정의당이 이번 재보선에 후보도 내지 않고 민주당 지원도 거부하는 가운데, 정의당 지지자를 포함한 진보층 유권자의 표심 자극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저녁까지 노랑진 수산시장·광화문·서대문구 홍제역·은평구 연신내역·여의도역·홍대·연남동 등 주로 서울 서부권을 돌며 거리인사와 집중 유세를 했다. 광화문 일대에서의 심야 거리 인

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홍대 앞 저녁 유세에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부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집결했다. 민주당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20~3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 프보상 의혹 및 거짓말 논란 등도 끝까지 문제 삼으며 ‘후보 경쟁력’을 부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서울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부탁드린다”며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 박영선을 떠올려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지막날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를 훑는 강행군에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을 만나 눈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퇴근길 ‘파이널 유세’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총출동했다. 장소는 청년층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신촌역 앞이다. 오 후보에 대한 20~

30대 지지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이들의 지지를 투표로 끌어내기 위한 장소 선택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여론을 향한 비판 여론을 실제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판세를 굳힐 수 있다고 보고 투표 호소 메시지를 거듭 내놓을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고 염증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일 투표장에서 투표해서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부디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당 지지해 주세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재보궐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6일 프로야구 KIA-키움 경기가 열린 서울 고척돔에서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날 유세에서는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병호·윤영덕·이형석·조오섭·이 용빈·민형배 등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과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시울)이 참석해 “호남의 선택은 박영선 후보의 승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제공〉

與 차기 지도부, 재보선 결과에 달렸다

패배시 지도부 책임론·쇄신론 분출…경선 일정·인물 구도 출렁

4·7 재보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초순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이어 중순에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선거 패배시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6일 통화에서 “이기고 지느냐, 만일 지더라도 얼마의 격차로 지느냐에 따라 판이 어떻게 짜일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승리할 경우에는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보선 과정에서 심각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 정책 기조 등에서 일정 부분 ‘쇄신’이 불가피하겠지만, 큰 틀의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이다.

현재 당 대표에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에는 윤호중·안규백·박완주 의원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도부 책임론과 전면 쇄신론이 불거지면서 원내대표 경선이 앞당겨지거나 인물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전대를 앞당기긴 어려우니 원내대표 경선을 빨리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산적인 원내 현안에 속도를 내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10% 포인트 이상의 참패를 당할 경우엔 임기가 보장된 최고위원들까지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아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경선 연기로도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헌·당규상 대선 6개월 전까지 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선 9월에 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현재 1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계를 비롯, 기존의 당권주자 3인과 상당수 의원들은 ‘현재 있는 수습’을 거론하며 예정대로 전대, 원내대표 경선, 대선후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연합뉴스

김종인 내일 사퇴

국민의힘 지도부 전대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재보선 다음날인 8일 퇴임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6일 통화에서 “모레(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여행 등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퇴임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체제로 돌입한다. 8일 회의에서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5월 중 새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때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현재처럼 당 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갖는 ‘단일 지도부체제’를 유지할지,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협의하는 ‘집단 지도부체제’로 바꿀지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H특검, 재보선 끝나면 탄력받을까?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소리를 요란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검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3일 첫 회의 이후 사실상 멈춰선 여야 ‘3+3’ 협의체는 재보선이 마무리되면 두 번째 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일단 협상이 진척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LH 특검이 ‘선거용’으로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중 어느 한쪽은 엄청난 내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불보듯 뻔한 탓에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

라는 관측이 많다.

방법론을 두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최장 90일의 특검 수사라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년 이상 특검 수사를 하자고 주장한다.

특검의 수사 범위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LH 사건에 대한 특검이 적합한지도 의문인데, 야당 주장처럼 청와대 대상에 넣자는 식은 정치 특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희재 “생활형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울) 국회의원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레지던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레지던스의 주거 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



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반발하였다.

김 의원은 “국토부도 지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이에 동의해서, 기본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개호 “11개지구 배수개선 예산 640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6일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11개지구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6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담양군 담양지구가 신규착수지구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52억원이 투입되고 기본조사지역으로 ▲담양 응용지구 84억원 ▲함평 학교지구 150억원 ▲장성 신흥지구 60억원이 투입되어 침수피해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수리시설개보수 신규사업으로는 ▲담양 관



상지구 40억원 ▲담양 금월지구 49억원 ▲담양 대성지구 40억원 ▲함평 대동2지구 40억원 ▲영광 약수지구 40억원 ▲장성 수양지구 45억원 ▲장성 북이지구 40억원 등 7개 지구 296억원의 국비가 투입

되어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수기동
제일OP**

- ▶ 20층 중 8층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 계약 252㎡, 전용면적 142㎡
- 매매 - 3억3천만원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문의. 010-3605-5000